
“인간의 죽음” 이후 반(半)세기: 기계의 노동, 생명, 언어*

이찬웅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II. 인간의 퇴장과 기계의 등장
 - 1. 기계의 노동: 새로운 정치경제학 비판
 - 2. 기계의 생명: 바이오테크의 도전
 - 3. 기계의 언어: 코드와 명령어
- IV. 결론

국문초록

현대 과학기술의 특징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 내부로 침입해서 그 본성을 변화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포스트휴먼 현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인문학과 기술 학이 결합된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을 기술주의적, 해체론적, 비판적, 유물론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관점은 푸코의 고고학적 시대 구분 그리고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주의를 교차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3A2 074955).

는 데서 획득된다. ‘인간의 죽음’ 이후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기계의 노동, 생명, 언어이다. 이것이 가져올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푸코, 들뢰즈, 과타리, 기계주의

I. 서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큰 특징은 뇌과학과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의 방향이 인간 자신을 향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까지 기술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간 상호 간의 소통의 차원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과학의 분석 능력과 기술의 제작 능력은 마지막 남은 미지의 개척지를 향하듯 인간의 내부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더 이상 자연적 소여로 간주되지 않고 인위적 조작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를 ‘포스트휴먼의 시대’라 부를 수 있다.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에 의한 인간 정신과 신체의 급진적인 변형, 그리고 사이버보그와 같이 인간과 유사한 기술적 종(種)들의 출현을 지시한다. 『골렘』, 『프랑켄슈타인』(1818), 〈블레이드 러너〉(1982) 등에서처럼 문학적·영화적 상상력에 의해 그려졌던 세계가 실제로 도래하고 있는 시대적 전환을 맞이하여, 학제적이고 비판적인 포스트휴먼 연구(Posthuman Studies)가 급속히 요구된다. 산위에서 자연을 내려다보는 중년의 신사가 인간 시대의 초상이었다면,¹ 이제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주인공인 사이보그 쿠사나기 모토코가 포스트휴먼 시대의 아이콘이다.²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예찬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서적인 반응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제도 면에서 많은 변화를 불가피

1. 예를 들어, 회화 작품 Caspar David Friedrich, *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1817 참조.

2. 〈공각기동대〉(*Ghost in the Shell*)는 만화가 원작이고, 이후 독창적인 색깔이 덧입혀져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시로 마사무네의 만화 연재는 1989년에 시작되었고, 오시이 마모루 감독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 1편이 1995년에 제작되었다. 1997년에 비디오 게임이 출시되었고, 2017년 루퍼트 샌더스 감독의 극장 실사판이 발표되었다.

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근대적 세계관 전반을 떠받치는 토대는 인간과 자연,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편에는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작동하는 자연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의식과 의지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면서 인과 법칙으로부터 도약하고자 하는 인간이 있었다. 이를테면, 셰익스피어의 『햄릿』(1599~1601)과 뉴턴의 『프린키피아』(1687)가 근대 문명의 두 이념을 대표한다. 그러나 주체-대상의 이분법, 인간적 심연의 이해와 자연 법칙의 발견, 인문학과 자연과학·공학의 구분, 질적인 이해와 양적인 분석 등의 구분은 이제 모두 무화되거나 최소한 그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 매체철학자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의 표현을 빌자면, 소금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배는 이제 과학 법칙의 바다 안으로 가라앉아 녹아들 운명인 것이다.³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과 기술의 현황을 참조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한 작업을 위한 이론적 성격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관점이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50여 년 전에 선언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테제, 그리고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과타리(Félix Guattari)가 제시한 기계 개념을 교차시키면서 형성된다. 본격적으로 그러한 관점을 제시하기에 앞서,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자. 그 다음 휴머니즘의 내용적 모순과 시대적 한계를 지적했던 현대철학의 사유와 함께 현대 과학기술의 흐름을 살피면서 앞으로 도래할 ‘인간 이후’의 풍경을 그려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포스트휴먼 연구는 융합적인 관점과 학제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철학과 기술학 양자가 만났을 때 서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에서, 철학은 사상사적

3. Vilém Flusser, “Orders of Magnitude and Humanism”, in (ed.) Andreas Strohl, *Writings*, Univ. Minnesota Press, 2002, pp. 160~164.

인 비판을 넘어 기술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기술에 대한 태도는 극단적인 두 가지 위험을 피해야 한다. 그 위험이란, 우선 자본과 결합된 채로 무제약적인 남용을 누리면서 인간과 자연을 예기치 못한 파국으로 몰아넣는 위험이며,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존엄성을 옹호하는 명분 속에서 선택적인 통제를 가하는 부당함이다. 기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대신, 인간과 기술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고찰이 이루어졌을 때, 기계가 인간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휴먼 현상과 이념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Habermas)나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처럼 인간 본성의 선천적 소여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진영을 별도로 한다면, 포스트휴먼 연구를 크게 네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한스 모라벡은 『마음의 아이들』에서 생명공학, 나노기술, 정보기술 분야의 급격한 발달이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⁴ 그는 구체적인 연도까지 제시하는데, 2040년 즈음에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출현하리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진화, 그리고 인간 이외의 기계적 종의 출현이 필연적이라고 예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 부모 세대가 사라지고 자손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듯, 조만간 우리는 사라질 것이고 기계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⁵. 그리고 레이몬드 커즈와일(Raymond Kurzweil)과 앨런 뷰케넨(Allen Buchanan)도 이러한 전망을 공유한다. 이러한 입장은 통상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현대 생명 과학기술이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4. Hans Moravec, *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한스 모라벡, 『마음의 아이들』, 박우석 옮김, 김영사, 2011.

5. 한스 모라벡, 위의 책, 18쪽.

이렇듯 ‘기술주의적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의 이론가들은 진화론적이고 선형적인 역사관 속에서 인간의 사이보그화라는 고전적인 미래상을 그려냈다. 인간의 진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역설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진보를 이룩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이념의 공학적 버전처럼 나타난다. 실제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근대적 계몽주의의 핵심적 목표를 충실하게, 다만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취하고자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인 토대를 재구성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이론적인 차원과 실천적인 차원에서 모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정신의 계발이라기보다 정신의 개조이며,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두 번째 입장으로는, 바로 이러한 기술주의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을 이끌었던 캐서린 헤일스가 대표적인 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저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는 포스트휴먼 연구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중심 논의가 되었다.⁶ 저서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제목은 의미심장하게도 과거형으로 묻고 있다. 이것은 캐서린 헤일스 특유의 수사학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이 책은 과학기술이 미래에 인간을 새로운 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극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이것이 겉보기와 달리 자유주의적인 휴머니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폭로한다. 기술주의적인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더 이상 자연적으로 주어진 단백질 신체에 ‘들어 앉아’ 있지 않고, 컴퓨터 칩에 정신과 기억을 완전히 이식하는 방식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캐서린 헤일스가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 이는 서구 형이상학의 오래된 이원론적 위계화, 즉 정신과 신체를 본성상 구분하고 신체를 폄하하는 구도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체현(embodiment) 되지 않은 정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저서의 제목

6. N. Katherine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플래넷, 2013.

은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비물질화, 정신의 가상화라는 잘못된 포스트휴먼 신화 담론에 둘러싸이게 되었나’라는 비판적인 뜻이 된다. 저자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방법론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녀의 입장을 ‘해체론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저서의 제목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이 저서는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적 전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어조로 “인간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포스트휴먼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포스트휴먼이 인간 종의 생물학적 구성과 기계 구조의 상호간섭을 의미한다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미 포스트휴먼이었다는 것이다. “포스트휴먼 주체는 혼합물,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이다.”⁷ 이 저서에서 케서린 헤일스는 포스트휴먼 논의를 근대적인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비판으로 확장하면서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 번째, 슈테판 헤어브레히터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러한 비판의 과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⁸ 저자는 포스트휴먼 연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자제하고, 대신 다른 층위에 위치한다. 포스트휴먼 현상과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에 정향된 현재의 포스트휴머니즘화를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으로 바라보며, 포스트휴먼화를 휴머니즘에 내재하는 가장 최근의 문화적 징후로 분석하고자 한다.”⁹ 독일 비판이론과 프랑스 현대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정보, 미디어 등을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을 새롭게 위치 지우고자 한다. 이론과 현상의 진행을 내재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상은 현대 과학기술 시대

7. 헤일스, 앞의 책, 25쪽.

8. Stefan Herbrechter, *Posthumanism: A Critical Analysis*, Bloomsbury Academic, 2013;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포스트휴머니즘』, 김연순·김용준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9. Herbrechter, 앞의 책, 13쪽.

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문학을 목표로 하며, 저자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¹⁰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네 번째,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은 들뢰즈의 유물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해 이것을 포스트휴머니즘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는 작업이다.¹¹ 이런 점에서 그녀의 입장을 “유물론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는 현시대의 제반 변화와 활동을 지구 단위에서 벌어지는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사례로, 유전공학적 변형과 질병의 전세계적 유행은 ‘인류세’(anthropocene)의 시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현시대의 과학기술과 미디어의 힘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정체성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비(非)인간의 혼합은 이 시기에 어떤 결정적인 지점을 넘어서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혼합은 역사상 언제나 존재했다. 이는 다양한 되기/생성이라는 실천적 문제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입장은 전선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스트휴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기술주의적-유물론적-해체론적-비판적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주제 개념과 관련해서는, 기술주의적 태도는 이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다른 세 가지 입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비판적-해체론적-유물론적 순으로 이론적 비판에서 실천적 대응 순으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선행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주의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이 가져올 미래상을 상상해보도록 자극하기는 하나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비판에 대해 이 이론가들은 ‘기술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어조의 대답을 내놓고는 하는데, 기술사나 기술사회학에 대한 이해 없이 매우

10. 앞의 책, 13쪽.

11.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Polity, 2013;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순진해 보일 때가 많다. 해체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상호 매개라는 관점 속에서 풍부한 논점을 제시하나, 구체적인 분석에서 너무 문학 텍스트의 분석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곤 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유럽의 현대철학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정당하게 강조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면이 사변적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현대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사고를 이끌면서 과학기술을 생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주장을 하지만, 연구 방법론에 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III. 인간의 퇴장과 기계의 등장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사상사의 흐름 안에서 ‘인간 이후’의 주제를 생각할 때, 누구보다 철학자 푸코를 참조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는 대략 반세기(半世紀) 전에 자신의 주저(主書) 『말과 사물』에서 “인간의 죽음”을 선언했다.¹² 그는 서양 사상에서 인간의 형상이 18세기 말에 고안되었으며 20세기 중반에 그 형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이 생물학적인 종(種)으로서 소멸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인간의 내적 본성을 원천과 근거로 삼은 인문(과)학이 형성된 반면, 그 이전 시기에 인간이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망들이 펼치는 중간 매듭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푸코는 특유의 고고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인문과학이 갖는 고유한 내적 불안정성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그러한 불안정성을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던 인간 개념이 푸코 자신의 동시대에 실효성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인간의 본성과 휴머니즘을 역사적으로 상대화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 그리고 자율적으로 보이는 주체가 사실은 지식과 권력에 의해 생산된다고 주장한

12.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1966;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서울: 민음사, 2012(개정판).

이러한 입장을 ‘안티-휴머니즘’(anti-humanism)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법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윤리적 요청과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라고 선언했던 근대적 사유들에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었던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했을 때,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전략이 더 실효적인 것으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안티-휴머니즘은 오늘날 기술적 포스트휴먼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전자는 자연 속의 인간을 ‘국가 속의 국가’로 특권화했던 근대적 휴머니즘을 비판하고 일원론적 관점에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고자 했다. 이제 이러한 사유는 후자가 개방하고 있는 과학기술적 잠재성의 영토 안에서 더 멀리 전개되어야 한다. 요컨대, 포스트휴먼 연구의 요체는 이론적 안티-휴머니즘과 인간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어떤 주장이나 발견이 과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요소들의 영향으로 통해 역사적이고 단절적으로 형성된다. 그는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와 조르주 칸길렘의 과학사와 인식론 연구를 이어받아 서양 사상과 문화의 역사를 에피스테메(épistémè)의 단절과 불연속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에피스테메란 그가 “인식을 위한 가능 조건의 역사”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푸코는 16세기 이후의 유럽을 세 시기로 구분한다. 16세기 르네상스, 17세기 중반-18세기 고전주의, 그리고 19세기 이후 모더니즘 시기가 그것이다. 각각의 시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개념망을 수렴시키고 다시 자신으로부터 발산시키는 고유한 중심 개념이 존재한다. 르네상스 시기는 유사성이, 고전주의 시기는 재현이, 모더니즘은 인간 개념이 그것이다.

이 구분은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이 글의 관심사에서 벗어난다. 대신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시대적 구분을 가로지르는 일관된 세 개의 축을 푸코가 추출해낸다는 점이다. 노동(또는 부[富]), 생명,

언어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시대마다 개념망들을 연결하는 방식과 중심점이 달라졌다는 것이 푸코의 논지이다. 18세기 말에 와서 인간이라는 개념이 인문학의 핵심 개념이 되었고 위에서 말한 세 분야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은 노동하고 살아가고 말하는 존재로서 그 본질이 이해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노동, 생명, 언어 일반이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푸코는 자신의 당대에 “인간의 죽음”, 보다 정확히 말해 이러한 인간 개념이 인문과학에서 소멸해가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이후 도래할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도발적인 선언에 묵시론적인 어조를 담지 않는다. 고전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이행했던 것처럼, 모더니즘에서 다시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행 안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사유의 지평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호기심과 진지함을 잃지 않고 말한다. “인간의 종말은 철학의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날 인간의 사라짐에 의해 남겨진 공백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사유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 이 공백은 사유하기가 마침내 다시 가능한 공간의 전개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¹³

푸코의 논의는 여기에서 끝난다. 그렇다면 이 공백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실증적인 모습, 즉 일하고 살아가고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더 이상 노동, 생명, 언어의 연구에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는 오늘날, 무엇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 무엇보다 기계(machine)가 그 자리를 점점 더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기계 개념은 특정한 기능을 가진 부품들의 조립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connectivity)과 작동성(operativity)을 본성으로 하는 존재자 일반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기체 역시 어떤 수준에서는 기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기계 역시 자기-형성적인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계는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교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명체와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시적인 수준에 도달한 생명과학은 1950년대 이미 생명체의 세포가 재생

13. 푸코, 앞의 책, 468쪽.

산 프로그램에 따라 DNA와 단백질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고 설명했다.¹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들뢰즈와 과타리가 『안티-오이디푸스』(1972)에서 전개했던 유기체-기계 일원론은 푸코의 질문에 대한 (아마도 최초의) 중요한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들뢰즈와 과타리는 기계를 “흐름의 절단과 연결”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하고, 자연의 모든 존재자들을 “육망하는 기계”라고 규정한다. 『안티-오이디푸스』는 무의식, 신체, 동식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계적인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다.

푸코의 시대적 구분과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주의(machinism)를 교차시키면서 오늘날의 변화를 생각해보자. 들뢰즈와 과타리는 기계 또는 기계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인문사회과학의 한복판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푸코가 설정한 세 개의 축은 ‘인간 이후’의 시대에 대한 연구에 체계적이고 발견을 돕는(heuristic) 관점을 제공한다.¹⁶ 요컨대, 기계의 노동, 생명, 언어라는 세 개의 축을 따라 살피는 것이 우리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풍경을 그리면서 그러한 작업을 위한 예비적인 서설(序說)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기계의 노동: 새로운 정치경제학 비판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이면 로봇에 의해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자주 인용되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직업군 중 47퍼센트가 10~20년 안에 컴퓨터 자동화의 영향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¹⁷

14. Jacques Monod, *Le hasard et la nécessité*, Paris: Seuil, 1970, pp. 124~125 참조. DNA와 단백질 사이에 수립된 체계는 “근본적으로 테카르트 사상에 가깝지, 헤겔의 사상은 전혀 아니다. 세포는 사실상 하나의 기계이다.”

15. 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L'Anti-Oedipe*, Minuit, 1972; 질 들뢰즈·펠릭스 과타리, 『안티-오이디푸스』, 김재인 옮김, 민음사, 2013.

16. 앞서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 논문이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푸코의 방법론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20세기 후반을 규정짓는 텍스트들을 선별해야 한다. 이는 차후의 작업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17. Hasan Bakhshi, Carl Benedikt Frey & Michael Osborne, “Creativity vs. Robots: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Future of Employment”, Report published by NESTA, London: Nesta, 2015.

이 문제와 관련해,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¹⁸ 199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해 제1세계는 이미 고용 없는 경기회복, 일자리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저자는 주요 이유를 기계에 의한 생산력의 급격한 상승에서 찾고 있다. 21세기 중반까지,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사무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변화하고, 기계는 농업, 제조업 등에 있어 인간 노동을 거의 대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술과 노동의 상관관계는 경제학의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는 하지만, 정보화 시대 또는 “접속(access)의 시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기술의 발전이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 새로운 노동 분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실업을 일으켜, 자칫 소비의 위축과 경제 자체의 붕괴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 MIT 교수 에릭 브린올프슨과 앤드루 맥아피는 현시대를 “제2의 기계 시대”라고 규정했다.¹⁹ 18세기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제1의 기계 시대라면, 21세기에는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에 의해 제2의 기계 시대가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저임금 신체노동이 증기기관 동력을 활용한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다면, 이와 평행하게 후자에서는 인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이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3차 산업(지적인 서비스 산업) 바깥에 ‘제4차 산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는가, 라고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학적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면서 보다 관심을 갖는 지점은 인간의 이해 변화와 관련된다. 푸코가 분석한 것처럼, 인간성의 본질을 노동에 두는 것이 과연 오늘날 온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노동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의 역사성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을 노동에 두었던 것은 19세기 중반 헤겔과 맑스에 의해서였다. 노동할 때만이 인간은 소

18. Jeremy Rifkin, *The End of Work*, Tarcher, 1994, 2004(2ed);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서울: 민음사, 2005.

19.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기계와의 경쟁』, 정지훈·류현정 옮김, 티움, 2013;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시대』, 이한음 옮김, 청림출판, 2014 참조.

외에서 벗어나 자신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인간만이 생존을 넘어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노동 사이의 배타적 관계란 그 자체로 자명한 것은 아니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인간뿐 아니라 기계 역시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리카도와 맑스의 노동가치설을 비판하는 함축을 지닌다. 또한 인간의 본질 또는 우월한 특성을 개념화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노동 바깥에 놓여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에서, 베르그손은 웃음에서, 낭만주의자들은 예술에서, 니체와 하위징아는 놀이에서 발견했다. 이런 관점들이 지닌 가치를 다시 한 번 고려하면서, 기계가 생산하는 가치를 사유, 예술, 놀이하는 인간들 역시 분유할 수 있도록 인간 이해를 혁신하고 사회 체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덧붙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구호가 앞으로도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슬로건이 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이 인간에만 배타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원칙은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계의 소유주가 잉여가치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모두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중 하나가 기본소득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계의 생명: 바이오테크의 도전

조르주 칸길렘(George Canguilhem)과 미셸 푸코는, 생명이라는 주제가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부터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는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생명은 고유한 연구 주제나 개념으로서 ‘최초로’ 이 시기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많은 논쟁을 별도로 하고, 다만 이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개념적 공간의 출현은 생명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지점을 제공한다.

고전주의 시기에 과학자들이 기관들의 특징을 공식적이고 단일한 평면 위에서 배열했다면, 19세기에 들어와 생명의 감추어진 작동이 그러한 평면 아래쪽 깊은 곳에 등장하게 된다. 라마르크(Lamarck)가 1802년에 “생물학”(biologie)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학문을 창시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신조어는 가시적인 기관들과 구별되는 심층에 위치한 성질 또는 힘에 대한 탐구를 의미했다. 그리고 기관들은 생명이 기능에 따라 현시되는 결과로서 파악된다.

이후 20세기에 생명을 현대적으로 개념화하는데 결정적인 과학적 사건을 선별하자면,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하나는 슈뢰딩거(Schrödinger)가 『생명이란 무엇인가?』(What is Life?, 1944)에서 생명을 “음의 엔트로피”(negative entropy)로 정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명은 ‘무질서 안에 있는 질서의 자기 조직’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1953년에 화학자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과 제임스 왓슨(James Watson)이 최초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명은 개체의 생성과 소멸을 넘어 DNA에 담긴 정보를 운반하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생명을 정보의 관점에서 새롭게 개념화하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생명이 일종의 정보라면, 그것은 분해 불가능한 단일체가 아니라, 미시적인 수준에서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합성되는 것임을 함축한다.

생명은 이해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성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합성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합성 생물학은 생물학과 공학의 교차 분야로, 생물학적 모듈, 시스템과 기계를 여러 목적으로 디자인하고 구축하는 학문이다.²⁰ 생명의 기능과 현상을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생명을 조립하고 창조하려는 시도이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2010년 5월 J.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는 ‘합성 게놈의 박테리아 이식’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M. 미코이테스라는 박테리아의 자연적 DNA를 흉내내는 108만 염기쌍 규모의 게놈을 인공적으로 합성했고, 이를 다른 박테리아 종의 세포에 이식해 합성생명체를 만들었다. 한 분자생물

20. ‘합성 생물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1910년대에 이미 등장했고, 보다 현대적인 용법은 1974년에 나타난다.

공학 교수는 <네이처>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합성된 것은 아니지만, 생물학의 유명한 경구 ‘모든 생명체는 알로부터 나온다’ (Omne vivum ex ovo)의 유효 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사막을 차지하는 생물학적 반응로를 통해 박테리아로 수소 연료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²¹

이처럼 19세기에 생명은 심오한 단일한 힘으로서 간주되었지만, 21세기에 그것은 분자적인 수준에서 정보를 운반하고, 따라서 재구성 가능한 요소들을 통해 이해된다. 생명은 자기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 자기 형태를 스스로 창조하는 힘,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려는 운동으로서 이해되며, 그렇기 때문에 무기물과 구별된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은 물질적인 요소가 없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은 훨씬 더 물질적이며 분자적인 어떤 것이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생명체는 탄생한다기보다 조립되는 어떤 것이라고 상상하게 한다. 이는 더 이상 생명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이것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인간중심적 가치와 공존 모색적인 가치가 격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생명이 과거에 인간 또는 동물 개체를 모델로 삼아 이해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며, 앞으로는 연결과 작동의 관점에서 파악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3. 기계의 언어: 코드와 명령어

N. 케서린 헤일스는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에서 계산적 우주론(Computational Universe)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²² 계산적 우주론이란 자연의 기층에 존재하는 것은 정보이며, 자연의 변화란 정보의 연산 결과에 기인한다는 학설을 말한다. 케서린 헤일스는 계산적 우주론이 하나의 물리학적 진리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녀의 논의는 단순히 여기에서 멈추지

21. Steven Benner, “Life after the synthetic cell: synthesis drives innovation”, *Nature* 465, 2010 May 27, p. 423.

22. N. Katherine Hayle, *My Mother Was a Computer: Digital Subjects and Literary Tex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N. 케서린 헤일즈,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 이경란·송은주 옮김, 아카넷, 2016.

않는다.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은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도록 자극하고, 그러한 관점과 방법론에 입각해 새로운 사물들을 만들게 한다.

그녀의 방법론은 참과 거짓을 구획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문학, 진리와 은유 사이 작동하고 있는 '상호매개'를 드러내는 데 있다. “계산적 우주가 기술적, 예술적 실천에서 수단이자 동시에 은유로 작동하는 복잡한 역학을 살피는 데 있다. 계산적 우주는 기술, 존재론,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계산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과 뒤엉키면서 서로 뒤섞이는 재귀적 루프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에 의해 생산된다.”²³ 요컨대, 디지털 정보 우주는 과학적 사실로서는 부분적인 뿐이지만, 오늘날 기술적·예술적 상상력을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실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정보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사물들이 실제로 많아지는 루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관계 맺는 언어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눈다. 말하기, 글쓰기, 코드가 그것이다. 그녀는 데리다가 쓴 『그라마톨로지』의 언어관을 영미문학과 컴퓨터 과학에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데리다에서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한다. 데리다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상관관계에 집중하면서, 순수 의미를 발화하는 말하기란 존재하지 않으며, 글쓰기와 같은 기입의 작용이 이미 말하기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드러낸 바 있다. 캐서린 헤일스는 이러한 데리다의 입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언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덧붙인다. 기표와 기의가 미끄러지고 따라서 무한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학적 텍스트라는 관념이 무력화되는 지점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영역이다. 코드의 언어는 다의적인 해석의 여백이 아니라 일의적인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고, 심오한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명령을 담고 있다.

푸코는 19세기에 언어의 감추어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등장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요컨대, 인간의 언어는 해석의 언어이다. 문헌학과 해석학은 인간의 고귀한 자리에 상응하는 19~20세기의 학문이다. 반면 이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언어는 기계의 언어, 명령어이다. 최

23. 헤일즈, 앞의 책, 4쪽.

근의 교육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에게까지 해석의 언어에 대한 인문학적인 교육을 축소하고 기계적인 프로그래밍의 언어, 코딩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취업률이라는 기준보다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심연에 감추어진 비의(秘意)를 이해 가능한 표면으로 옮기는 독해가 아니라, 모듈들을 연결시키고 작동시키는 코드의 작성이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요 언어 형식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IV. 결론

우리는 앞에서 에피스테메의 체제 안에서 인간이 차지했던 중심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는 과정, 또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연결성과 작동성의 관점에서 인간과 기계가 같은 평면 위에 놓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노동과 관련하여 기계가 인간의 일을 많은 부분 대신하고, 생명과 관련하여 분자적인 조립이 새로운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언어와 관련하여 해석의 여백이 명령의 코드로 대체될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결론 삼아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유전공학, 보철기술, 로봇공학, 뇌과학, 인공지능, 신경과학, 사물인터넷, 나노공학 등 현대 과학기술은 일반인들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방향 없이 인지될 경우 사람들은 체념한 상태로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과학기술은 과학자에 의해 발달되는 것이지만, 그 성과와 범위와 의미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에 의해 공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기술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인지 대중들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이론과 실천은 (배타적으로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와 지복을 위한 것임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말이 인문과학의 에피스

테메의 중심 자리를 반드시 인간이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 이외에 다른 개념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실천 철학은 가능하다. 이를테면 고전주의 시기에 속하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인간은 신의 전개 안에서 산출되는 양태일 뿐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인간의 지복을 위한 철학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양철학사에서 많은 참조를 할 수 있지만, 특히 17세기 철학자들의 활동은 오늘날 큰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천문학과 기계론의 발전으로 인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경계가 새로 확정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인과적 이해 방식이 인간 정신의 영역을 침습하고 있는 21세기 초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관념적인 것과 물체적인 것 사이의 경계와 상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날 인과 법칙의 미시적인 영역 깊숙한 곳까지 해명되면 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기계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둘러싸고 신경질적인 불안감과 맹목적인 낙관론이라는 양극단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이론과 실천이 요구된다. 서양의 인문학의 역사에서 인간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한정된 기간 동안이었다. 이제 기계적인 것이 인문학의 개념망의 중심에 진입하는 것을 긍정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 안에서 인간을 위한 실천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N. 캐서린 헤일즈,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 이경란·송은주 옮김, 서울: 아카넷, 2016.
-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서울: 아카넷, 2015.
-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서울: 민음사, 2012(개정판).
-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포스트휴머니즘』, 김연순·김응준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매카피, 『기계와의 경쟁』, 정지훈·류현정 옮김, 서울: 트윌, 2013.
- _____, 『제2의 기계시대』, 이한음 옮김, 서울: 청림출판, 2014.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서울: 민음사, 2005.
-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안티-오이디푸스』, 김재인 옮김, 서울: 민음사, 2013.
- 캐서린 헤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서울: 플래닛, 2013.
- 한스 모라베크, 『마음의 아이들』, 박우석 옮김, 서울: 김영사, 2011.
- 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L'Anti-Oedipe*, Paris: Minuit, 1972.
- Hans Moravec, *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Hasan Bakhshi, Carl Benedikt Frey & Michael Osborne, “Creativity vs. Robots: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Future of Employment”, Report published by NESTA(an independent charity, formerly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London: Nesta, 2015.
- Jacques Monod, *Le hasard et la nécessité*, Paris: Seuil, 1970.
- Jeremy Rifkin, *The End of Work*, Tarcher, 1994, 2004(2ed).
-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1966.
- N. Katherine Hayle, *My Mother Was a Computer: Digital Subjects and Literary Tex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_____, *How We Became Posthu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Polity, 2013.

Stefan Herbrechter, *Posthumanism: A Critical Analysis*, Bloomsbury Academic, 2013(독일어 본은 2009년에 출간).

Steven Benner, "Life after the synthetic cell: synthesis drives innovation", *Nature* 465, 2010 May 27, p. 423.

Vilém Flusser, "Orders of Magnitude and Humanism", in (ed.) Andreas Strohl, *Writings*, Univ. Minnesota Press, 2002, pp. 160~164(독일어 원문은 1987년에 출간, 영역본은 1993년에 출간).

Abstract

Half a Century after “the Death of Man”: Labor, Life and Language of the Machine

Lee, Chan-Woong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science and technology lies in trying to invade the human mind and body in order to change their nature. For the study of these posthuman phenomena, a fusion study of humanities and technology is needed. The preceding research involving posthuman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each of which could be called technocentric, deconstructive, critical and materialistic posthumanisms. Our view, which distinguishes us from these, is acquired by overlapping Foucault's archaeological periodization in history and Deleuze and Guattari's machinism. It is the labor, life and language of the machine that replace the place after “the death of man”. Concrete and detailed analyses of this changes will be an important task afterwards.

Keywords: Posthuman, Foucault, Deleuze, Guattari, Machinism

논문 투고일 : 2020년 3월 31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4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4월 16일